



w w w . s e o l b i . c o m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조합업무안내
조합업무 Q&A
조합칼럼
재테크
성공그것은...
설비건설인 씬터



인터넷 전자약정 체결 방법

조합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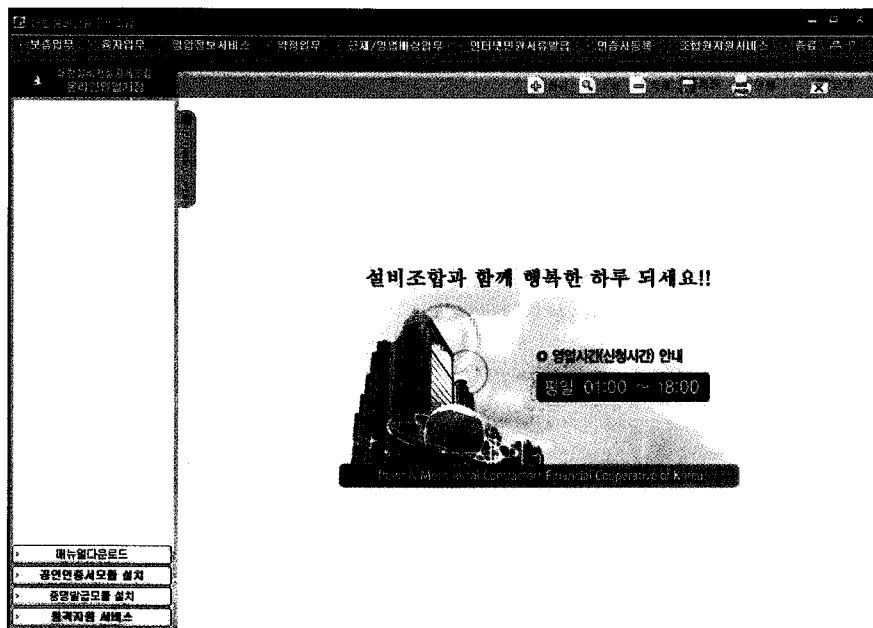
2011년도 신용평가 완료에 따라 인터넷 전자약정 체결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 서류는 범용 법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이사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일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지점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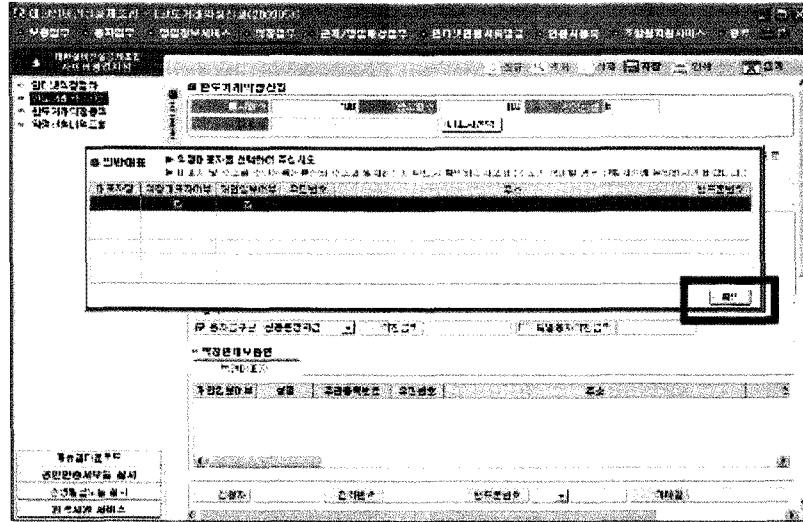
[온라인지점을 이용한 약정업무]

가. 인터넷 약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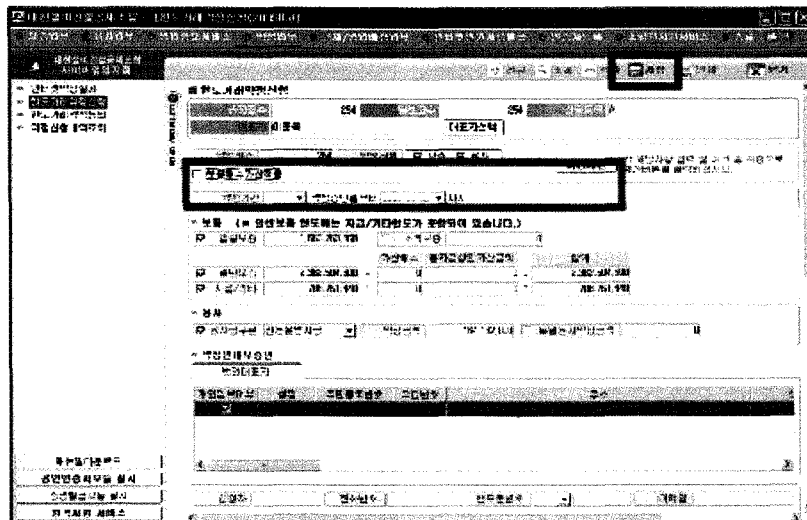
(1) 메인 메뉴 중 '약정업무'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메뉴 중 '한도거래약정신청'을 클릭하면 대표자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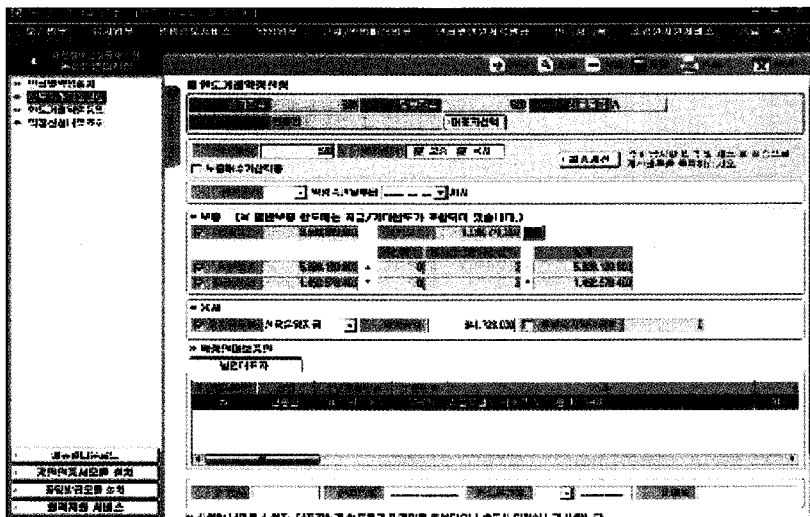
(3) 가산배수 적용여부, 약정기간 등을 선택하고, 약정연대보증인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과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의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약정내용이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전송되고, 특히 약정연대보증인에게는 약정내용에 대하여 약정 내용을 동의하도록 메시지가 전송되며, 연대보증인은 홈페이지에서 약정동의를 해야만 약정체결이 완료됩니다.



- (5) 온라인약정 내용이 적용된 최종 화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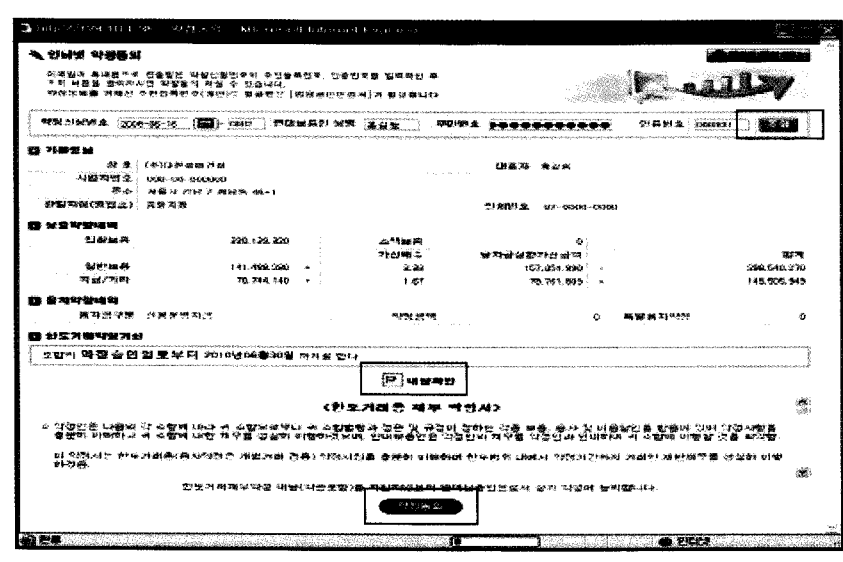


나. 연대보증인의 인터넷 약정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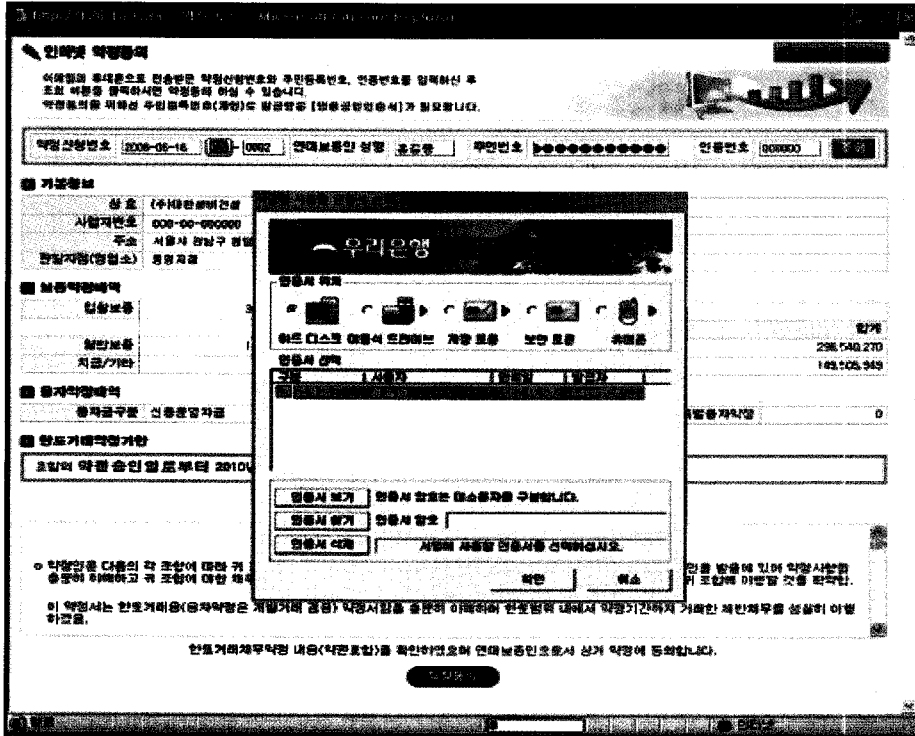
(1) 연대보증인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약정 동의메뉴를 클릭합니다.



(2) 약정신청번호, 연대보증인성명, 주민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약정신청 내용이 조회되며, 연대보증인은 동약정내용(연대보증인, 보증 및 용자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약정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약정내용에 동의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 화면창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약정동의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핸드폰·이메일,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약정동의 내용이 전송됩니다.



다. 인터넷 약정승인 및 약정체결

약정연대보증인의 약정동의 절차가 끝나면 지점(영업소)에서 동 약정 내용을 심사한 후 승인함으로써 약정체결이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신청인의 핸드폰과 연대보증인의 핸드폰 및 이메일로 약정체결 결과가 전송됩니다.

신용평가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 안내

조합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 유지를 위한 금년도 신용평가가 완료된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http://www.seolbi.com>)에서 신용등급 확인 및 신용평가확인서 출력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등급 확인 방법

온라인지점 로그인 → **영업정보서비스** → **신용평가통지서 조회** → **조회년도 입력** → **조회**

※ 과년도 신용평가 등급은 조회년도를 2010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신용평가확인서 출력방법(등급확인서)

온라인지점 로그인 →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 **신용평가확인서** → **발급**

참고사항으로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2011년도 신용등급이 조회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할 지점에서 현재 신용평가 업무를 처리 중이므로 관할지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용등급 유효기간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지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중심으로... ②

13. 조합원사의 대표자 등 약정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등의 업무 거래 범위

가. 배경

최근들어 부도발생된 조합원사의 대표자가 면책결정 등을 받아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면서 대표자로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나. 대상

약정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지원을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및 면책결정자인 경우

-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도 등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거래 제재를 받음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대표자로 선임되는 일이 없었으나,
- 최근들어 부도발생된 조합원사의 대표자 등이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됨

다. 업무거래 범위

보증이나 용자 또는 관리채무 등 약정인의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출자지분액 범위내에서만 거래(제24조 제1항 단서)

14.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인수 거부 대상공사 완화(2010. 12. 9 시행)

가. 제도 개선 배경

- 최저낙찰 대상 공사를 수주 받은 조합원의 공사이행보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고액보증 발급시 계약보증사고로 인한 보증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증심사 강화 방안 마련

나. 개선 내용

-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인수거부 대상공사 완화
 - 담보제공시 보증인수 거부 완화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69%미만 ⇒ 60%

< 낙찰률 완화에 따른 담보징구 >

- 낙찰률 66% 이상 69% 미만 공사 : 예정가격의 69% 해당금액에서 낙찰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100%
- 낙찰률 63% 이상 66% 미만 공사 : 차액의 150%
- 낙찰률 60% 이상 63% 미만 공사 : 차액의 200%
- ※ 사례 : 예정가격 100억원인 공사의 담보금액(담보규칙에 서 정하는 거래한도 적용)
 - 66% 낙찰시 : 3억원[(69억원 - 66억원) × 100%]
 - 63% 낙찰시 : 9억원[(69억원 - 63억원) × 150%]
 - 60% 낙찰시 : 18억원[(69억원 - 60억원) × 200%]

- 60%이상 69%미만 낙찰공사의 담보징구에 따른 이중 담보징구 배제
 - 위 담보금액과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결과 심사등급 6~9등급에 해당하는 담보금액을 비교한 후 담보금액이 많은 금액 적용

15. 공동도급계약 공사 보증서 발급

가. 공동도급공사 보증강화 배경

-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는 공동수급인 중 1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다른 수급인에게 이행의무가 부여된 연대채무에 해당

- 조합원인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다른 수급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을 포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연대채무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상권 강화

나. 공동도급공사의 개념

-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한 주체 등 구성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가 구성되며(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 공동수급체 상호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관계의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체결 수행(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제4호)
 -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칭함(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제3호)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발주처 또는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책임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계약 목적물을 분할하여 자신의 분담부분만 이행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간에는 공동 경비만 부담

하는 방식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간의 발주처 또는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는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대한 책임만 존재하므로 공동수급체 중 1인이 채무 불이행시, 다른 구성원에게는 연대이행책임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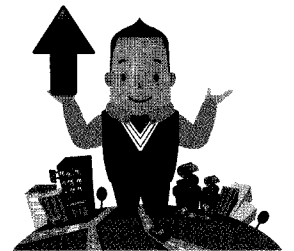
다. 공동도급공사의 보증서 발급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

- 공동수급체 각자가 자기 분담분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각자가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책임만 있고, 다른 수급인 분담부분은 연대채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이행각서를 받지 않음
- 공동수급체 1인이 타 공동수급인의 분담분을 포함하여 보증 신청하는 경우
 - 보증신청 금액에 포함된 다른 구성원 및 그 구성원 대표자의 연대채무이행각서(연대채무금액은 그 구성원의 분담이행부분으로 함) 징구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

- 공동수급인 연명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보증한도분할경리 신청서(공동수급인 연명으로 날인)
 - 연대이행확인서(공동수급인 연명으로 날인)
- 공동수급인중 1인이 다른 공동수급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확인서(공동수급인 연명으로 날인)
- 공동수급인이 각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선급금보증 제외)



- 연대이행확인서(공동수급인 연명으로 날인)
- 공동수급인중 1인이 다른공동수급인이 수령할 선
급금액을 포함하여 선급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채무이행각서(공동수급인과 그 대표자들이
연명으로 날인)
 - ※ 참고사항 : 연대이행확인서나 채무이행각서 징
구대상은 우리조합에서 보증하는 공
동수급인에 한하며, 다른 보증기관
에서 보증받은 공동수급
- 연대이행확인서 또는 확인서 징구방법 개선
 - 현행 : 보증신청시 구성원 전부가 연서된 연
대이행확인서 또는 확인서 징구
 - 개선 : 공동수급인 구성원 각자가 보증신청시
개별적으로 제출
- 공동수급인 중 1인이 타인 지분을 포함하여 보
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인의 연서
를 받아야 함
 - (사례) 공동수급인 A, B, C, D, E 등 5개사 중 A가 B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보증을 신청할 경우 ⇒ B사의
연서를 받은 연대이행확인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
하여야 함
- 연대이행확인서 또는 확인서 징구생략 대상
 -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 공동수급인이 외국법인인 경우(공동수급인이
일부가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만 징구
가 생략되며, 국내법인인은 징구하여야 함)

<참고>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비교표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좌동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하도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일부의 하도급 불가	각 구성원의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 하도급 가능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공사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 책임
손익의 배분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내용별로 구분. 다만, 공동비용의 경우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중도탈퇴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좌동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 책임	1차적으로 당해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책임. 잔존 구성원은 2차적 책임
도급한도액의 적용	각 구성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적용. 출자비율은 도급한도액에 맞추는 것이 타당	분담공사별로 당해 구성원의 도급한도액을 각각 적용
효력기간	서명과 동시 발효,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좌동
시공실적의 인정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 규모 및 양 : 분리, 구분 가능시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불가능한 경우 각자 전체 시공 실적 인정	구성원별 분담부분

조합업무 Q&A

조합업무 Q & A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조합업무전반에 관한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홈페이지(www.seolbi.com)
 Q & A 게시판과 이메일(webmaster@seolbi.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외건설공사관련 보증서 발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 조합원이 국내기업이 외국법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설립한 법인(해외 현지법인)과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대표회사로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야 함

- 공사를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나

- 조합원사의 등기부에 등기된 해외지점이 하수급 받은 공사는 보증서 발급 가능

-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시 징구서류
 - 보증채권자가 현지법인 경우 국내기업이 설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현장위치도(소재지), 현장 입 · 직원 연락처
 - 착공계,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내역서
 -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Q 최초 보증서를 타 보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당해 공사의 금액추가로 인하여 추가보증을 조합으로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A • 추가된 금액에 대하여 우리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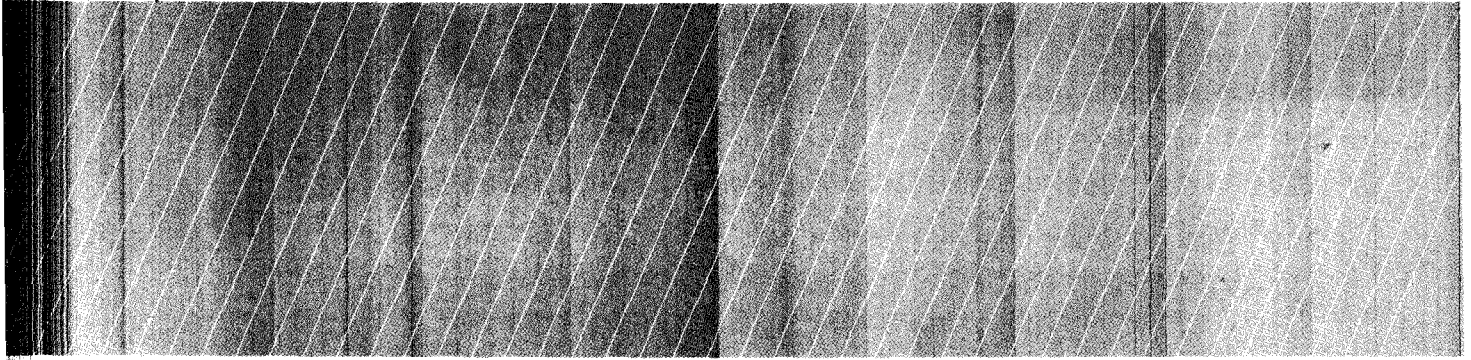
Q 조합 출자좌수를 50좌를 보유한 조합원인데 보증한도 부족으로 30좌정도 좌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보증한도 부족으로 증자를 원하시는 조합원의 업무처리순서는 크게 청약업무과 약정업무로 나뉩니다.

- 먼저 청약업무 처리는,
- ① 법인인감증명(개인은 개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개인은 개인인감도장), 증자대금을 준비하고
 - ② 거래지점을 방문하여 청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 ③ 조합 거래지점에서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증권 뒷면에 청약조합원 명의로 개서 후 담보제공을 받게 되면 청약(증자)업무는 종료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한도거래채무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유는 조합업무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질문한 조합원의 경우 기보유한 50좌의 약정만 이루어져 있지 증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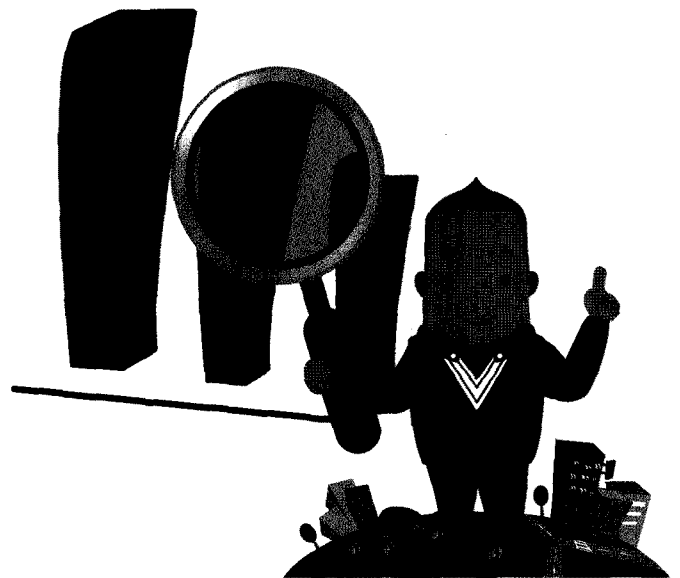
30좌를 포함한 전체보유좌수 80좌에 대한 한도거래 채무약정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청약시에는 한도거래용채무 약정 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재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조합에서 할인받은 할인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 되면 할인어음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할인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차주(조합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조합 업무거래가 중지됩니다. 다만, 어음발행인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미 이용 중인 용자금과 할인어음금액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액 한도 이내로서 조합채권의 보전에 침해의 우려가 없을 경우 당해 어음의 만기일 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보증인도 업무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99.6.21 개정)

Q 일반건설업체가 자체사업(아파트분양 등)을 추진하면서 시행자 및 시공자를 겸하는 경우 우리조합원이 설비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A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체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설비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입니다. 🏠





신용분석사 교육과정을 다녀와서

- 남부지점 6급 심규태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떠났던 지난 5월.

공부하면서 지칠 때 삼청동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삼청동의 기를 받고자 떠났던 금융연수원.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신용분석사 강의실은 이곳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다시 차를 타고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종로의 K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몇 년 만에 하는 자기소개로 시작된 첫 클래스! 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인 마냥 아무런 때도 타지 않은 새로운 책과 아직은 서툰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했다. 클래스 인원 구성을 보니 대부분이 은행권 사람들인 이곳에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공부인데 내가 못할 수 있을까?' 하는 첫날의 자신감을 느끼며 신용분석사 교육과정에 입소했다.

처음 접한 교육과정은 회계원리에 기초를 둔 교재로 시작했다. 대학 때 잠깐 짚고 넘어갔던 학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회계원리 응용과정은 조금씩 내게 부담으로 다가 왔다. 하루 7시간이 넘는 강의 후 발걸음은 홀가분하게, 그렇지만 마음은 무겁게 집으로 향했고, 집에 와서도 공부의 공부가 이어졌다. 도서관에도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학 졸업 후 처음이었다. '지금처럼만 했으면 서울대 가기도 남았겠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다.

강의가 대부분인 이곳에서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과의 교류는 점심시간 그리고 짝꿍과 하는 소소한 대화 외에는 없었다. 강의라는 커다란

막이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이 막을 거둔 것이 있다면 교육과정 말미에 했던 팀프로젝트였다. 이 팀프로젝트를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사람들과도 더 긴밀히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모두들 아쉬워했다. 역시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 친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빠빠하게 느껴졌던 5주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언젠가 다시 보자는 인사와 함께 서로의 일터로 떠났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좋은 기회였고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신용분석사 교육과정이라 소중한 경험이었다. 내 짝꿍이었던 홍콩 신한은행 이명희씨,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늘 자세히 알려주던 기술보증기금 안은주씨, 우리은행 윤석하씨 그리고 유일한 동갑이며 코드가 가장 잘 맞았던 교보생명보험 이영록씨는 지금도 생각한다.

